

# 보도자료



보도 희망일	즉시
문의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	김지은 전화: 880-5156, 이메일: kimzin@snu.ac.kr

배포일: 2024.2.27.(화)

## 산학협력단, 메가존클라우드와 양자컴퓨터 공동연구 협력 체결

-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(단장 김재영)이 클라우드 선도 기업 메가존클라우드(대표 이주완)와 양자컴퓨터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.
-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2월 23일(토) 서울 역삼동 메가존클라우드 회의실에서 메가존클라우드와 ‘양자컴퓨터 공동연구 및 협력을 위한 협약식’을 가졌다.
- 서울대 산학협력단 강병철 연구정책부단장(연구처장)과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협약식에서 양측은 양자컴퓨터 분야 기술 개발과 우수 인재양성을 통해 국내 양자컴퓨터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.
-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▲하드웨어, 알고리즘, 소프트웨어 등 양자컴퓨터 기술 공동연구 ▲양자컴퓨터 분야 인력 양성 ▲세미나, 특강, 워크숍 등 산·학 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.
- 서울대 강병철 연구정책부단장은 “서울대학교는 양자기술의 기초부터 응용까지 다양한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 국내에서 가장 큰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 서울대에서 깊은 학문적 지식과 연구를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양자컴퓨터 기술이 메가존클라우드와의 양자컴퓨터 기술 공동연구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, 경제적 가치로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”고 말했다.

- 서울대학교 김태현 양자연구단 단장은 “메가존클라우드와의 양자컴퓨터 기술 공동 연구 협력을 통해 서울대학교는 학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자컴퓨팅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양자컴퓨터 산업 생태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것”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-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대표는 “양자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,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될 것”이라며 “서울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중요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미래 기술의 리더십을 확보해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메가존클라우드 김동호 부사장(CQO · Chief Quantumcomputing Officer)은 “미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양자컴퓨팅 기술은 기술개발 초기 단계인 만큼 대학의 연구 역량과 기업의 기술 개발 능력이 결합될 때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”이라며 “서울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최상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”이라고 강조했다.
- 메가존클라우드 및 메가존 관계사는 2,700여 명의 클라우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국내 클라우드 MSP업계 최초의 유니콘 기업에 등극했으며, 2022년 1조 4,0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달성했다. 국내와 더불어 미국, 일본, 캐나다, 호주, 중국 상해·북경, 베트남, 홍콩, 싱가포르 등 해외 8개국에서 현지 법인도 운영하고 있다.